

원저

## 《傷寒論》 少陽病 提綱의 鍼灸學的 分經 및 定證의 運用 方法에 關한 研究

조정식 · 이준범 · 황민섭 · 윤종화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학교실

### Abstract

#### The Study on Acupuncture Operation Method of 《Sang Han Lun(傷寒論)》 Liu-Jing-Bian- Zheng(六經辯證)

- Based on the Study of So-Yang-Bing(少陽病) -

Jo Jeong-sig, Lee Jun-beom, Hwang Min-seob and Yoon Jong-hwa

Dep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Oriental Medicine College of Dong Guk University

*Objectives* : The following study was undertaken in order to seek the acupuncture operation method of 《Sang Han Lun(傷寒論)》 Liu-Jing-Bian-Zheng(六經辯證).

*Methods* : Based on the documents quoted in 《Sang Han Za Bing Lun · Xu Wen(傷寒雜病論 · 序文)》 of "Zhang, Zhong-Jing(張仲景)", the relativity of the theory of Jing-Mai(經脈) and Liu-Jing-Bian-Zheng of convalescence, and from the Liu-Jing-Bing(六經病), the origin and implication that caused So-Yang-Bing(少陽病) to form was studied on the basis of acupuncture medicine publications and the commentary writing of 《Sang Han Lun》.

*Results* :

1. 《Sang Han Lun》 Liu-Jing-Bian-Zheng has succeeded and was developed based on Liu-Jing-Fen-Zheng(六經分證) of 《Su Wen · Re Lun(素問 · 熱論)》. In addition, the summary of Liu-Jing-Bing became the general principle of Fen-Jing(分經) and Ding-Zheng(定證) that may be

applicable to Fenghan(風寒), Wenre(溫熱), Lili(疫癘) and Zabing(雜病).

2. Most commentators of 《Sang Han Lun》 in the Song, Ming and Ching Dynasties of 《Sang Han Lun》 interpreted the So-Yang-Bing in physiological and pathological aspects of Rong-Wei(榮衛) as the disease of the bladder meridian that oversees the skin of the human body.

3. From the Liu-Jing-Bing of 《Sang Han Lun》, the region of acupuncture treatment of So-Yang-Bing is treated with the needle from the point of view of bing-Zheng-Lun-Zhi(辨證論治) with the basis of the important region of acupuncture of the Triple Energizer meridian and Gallbladder of meridian.

Key words : 《Sang Han Lun》, Liu-Jing-Bian-Zheng, summary of Liu-Jing-Bing. So-Yang-Bing.

## I. 序 論

先秦의 馬王堆 出土 醫書 중 《足臂》, 《陰陽》 및 《脈法》에서 經脈의 路線, 經脈病候, 經脈診斷 및 各 刺絡의 治療法이 最初로 記載되어 있고<sup>1-3)</sup>, 漢代의 《靈樞》에서는 經脈에 解剖·生理·病理理論을 導入하여 循環路線의 確立, 經脈病候의 擴大, 三陰三陽에 따른 人迎寸口脈診法 및 鍼을 중심으로 灸, 刺絡, 藥物 등을 利用하여 治療하는 經絡學說이 樹立되었다<sup>4,5)</sup>.

《素問》, 《靈樞》에서 鍼灸學과 醫論의 兩面에서 基礎的인 成就를 바탕으로, 東漢의 《難經》에서 脈學, 經絡, 臟腑, 疾病, 穴位 및 鍼法을 體系的으로 論述하였다. 특히 獨取寸口診脈法, 左腎右命門說, 奇經八脈, 五輸·原·八會·俞募穴 및 補瀉法 등의 鍼灸에 關한 學說과 <五十八難>의 傷寒은 中風, 傷寒, 濕溫, 熱病, 溫病을 包含하는 '廣義傷寒說'을 闡發하였다<sup>6-8)</sup>.

東漢 末年에 湯液中心으로 著述된 《傷寒雜病論》은 漢末의 戰火로 逸失된 것을 晉의 太醫令인 王叔和가 醫書を 收集하고 整理하여 《脈經·卷七》에서 汗, 吐, 下, 和, 灸, 刺, 水 및 火의 治法에 따라 “可” “不可”의 次例로 轉載하였고<sup>9)</sup>, 唐·孫思邈의 《千金翼方·卷九·卷十》을 바탕으로 唐本傷寒論으로<sup>10)</sup>, 北宋의 林億 등은 校正醫書局의 校訂을 거쳐 定本人인 《宋本傷寒論》과 《金匱要略》으로 分卷하여 傷寒 學術 發展의 基礎를 마련하였다<sup>11)</sup>.

金·元代는 龐安時的 《傷寒總病論》과 朱肱의 《類證活人書》를 中心으로 八綱辨證을 통하여 '辨證

思想'이 重視되었고, 許叔微는 《傷寒發微論》에서 '三綱鼎立' 學說이 提起하였고. 明·清代는 '錯簡重訂', 尊王(叔和)贊成(无己)을 주장하는 '維護舊論', 同時에 '以方類證'을 위주한 '辨證論治'派 등의 學術類派가 형성되어 傷寒 學術이 크게 發展하였다<sup>12)</sup>.

《傷寒論》 研究 方面에 있어서, 朱<sup>13)</sup>는 “傷寒의 治療에는 먼저 經絡을 알아야 하고 經絡을 알지 못하면 邪氣의 所在를 알 수 없다” 하였고, 呂<sup>14)</sup>는 “《傷寒論》의 六經病은 《素問·熱論》을 本으로 새롭게 發展시켰다” 하였고, 柯<sup>15)</sup>는 “六經提綱과 六經地面說을 提唱하여 《傷寒論》의 六經과 《素問·熱論》의 六經이 모두 辨證論治의 綱領으로 相當한 差異가 있다”고 하였으며, 山田<sup>16)</sup>은 “宋 以後의 《傷寒論》 文獻 및 醫學的인 研究 主題는 《傷寒論》 屬에 內藏된 醫學的 方法 즉 六經辨證으로 불리는 診斷 및 治療의 方法을 確立하는 過程이었다”고 主張하였다.

이에 著者는 《傷寒論》 六經辨證의 鍼灸學的 運用方法을 探索하기 위하여 《傷寒雜病論·序文》<sup>17)</sup>에서 引用한 文獻을 根據하여 經脈의 理論 및 病候를 六經病과의 相關性을 찾고, 六經 가운데 少陽病 提綱<sup>14,18)</sup>이 形成된 淵源 및 少陽病 提綱의 鍼灸學的 分經 및 分證의 方法을 研究하여 報告하는 바이다.

## II. 本 論

### 1. 三陰三陽의 意義

陰陽은 觀物取象으로 分類하는 方法이며 《素問·

陰陽離合論》“日爲陽 月爲陰”이라 하여 日月을 陰陽으로 나누고 《素問·天元紀大論》에서는 “陰陽之氣 各有多少, 故三陰三陽也”라 하여 氣의 多少가 分類의 基準이 되며 陽分은 太陽, 陽明(兩陽合明, 兩火并合) 少陽으로 多, 少, 盛의 三極이 形成되고, 陰分은 太陰 厥陰(兩陰交盡, 至絕作朔晦)으로 多, 少, 衰變의 三極이 形成되었다. 또 《素問·至眞要大論》에서는 “氣有多少, 異用也”라 하여 氣의 多少에 따라 三陰三陽은 機能에 差異가 생긴다고 하였다.

先秦에서 ‘三陰三陽’說의 史料는 馬王堆 出土 醫書 중 《足臂十一脈灸經》과 《陰陽十一脈灸經》에서 有力한 證據를 提供하고 있으며, 馬<sup>19)</sup>는 “兩部 古灸經은 《黃帝內經》의 祖本이며, 泰陽(或 鉅陽), 少陽, 陽明, 少陰, 卷陰(或 厥陰)으로 命名된 經脈이 있고 最初로 三陰三陽의 述語가 既述되어 있다” 하였다.

《黃帝內經》의 三陰三陽은 天時變化, 天人關係, 臟象, 經絡, 氣血, 形志, 診療, 脈象, 病能 및 標本 등의 醫論에 貫通되어 있으며<sup>18)</sup>, 《黃帝內經》과 中古 醫籍 가운데 不同한 三陰三陽의 29種 9大類의 經脈 生理特證 및 層次類 氣血盛衰類, 氣血多少類, 病理反應類, 脉診部位類, 日旬年の 週期類의 過去·現在·未來 및 晝夜變化를 포함하는 天人地의 相互交感, 自然界의 氣候變化에 따른 歷法 및 臟腑經絡의 定性·定位에 따른 氣血盛衰의 變化 등은 모두 三陰三陽을 經緯로 編成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였다<sup>20)</sup>.

《素問》과 《靈樞》에서 言及된 經絡의 ‘三陰三陽’說에 關하여서 《素問·皮部論》에는 皮部를 三陰三陽 經脈의 基本으로 分區하고 外邪가 皮部에서 臟腑로 이르는 傳變을 論述하였고, 《素問·陰陽離合論》에는 光明(心臟)을 중심으로 上下 前後 內外로 區分하여 三陽의 太陽, 陽明, 少陽의 部位 및 三陰의 太陰, 少陰, 厥陰의 部位를 分區하였다.

그리고 《素問·陰陽離合論》과 《素問·皮部論》에는 陰陽之氣의 多少에 따른 三陰三陽 經脈의 機能을 開·闔·樞로 說明하였고, 《靈樞·根結》에는 開·闔·樞의 病理와 證候를 既述하고 있다. 또한 《靈樞·經脈》에서는 手足三陰三陽經의 循環理論을 確立하였고, 《素問·熱論》에는 三陰三陽의 經絡으로 外感 熱性病의 傷寒症狀를 六經으로 分類한 六經分證, 并病 및 死證에 關하여 論述하고 있다.

한편 陰陽은 宇宙萬物을 對象으로 하는 兩大分類이고 三陰三陽은 事物의 屬性에 對한 分類로 各各은 三으로 分類하는 方式이며 經絡의 三陰三陽說은 “三陰三陽의 開闔樞說”과 “三陰三陽의 外感熱病說”의

二種類가 있다<sup>20)</sup>.

“三陰三陽의 外感熱病說”을 六經傳變으로 論述한 《素問·熱論》과 外感熱病을 三陰三陽의 概念으로 傳變, 診斷 및 治療의 體系를 갖춘 著作인 《傷寒論》에 關하여 姜<sup>8)</sup>은 “《素問·熱論》의 六經分證은 《傷寒論》의 六經辨證의 淵源이며, 《傷寒論》의 六經辨證은 《素問·熱論》의 六經分證을 基本으로 하여 深化하고 發展시켜 體系化되었다” 하였고, 南京<sup>21)</sup>은 “《素問·熱論》의 六經은 分證의 綱領이고 《傷寒論》의 六經은 辨證의 綱領이다”고 하였다.

醫史學的으로 살펴보면 三陰三陽은 馬王堆 漢墓 帛書에 처음 轉載되어 있고, 《黃帝內經》에서 三陰三陽의 理論은 더욱 發展되고 完備되었다. 이후 《傷寒論》에서 그 理論 및 臨床應用에 飛躍의 發展하게 되었고 理·法·方·藥에 貫穿되는 辨證論治의 診斷 및 治療方法이 形成되었다<sup>18)</sup>.

## 2. 少陽病 提綱의 淵源

《傷寒論》의 제263조 “少陽之爲病, 口苦 咽乾 目眩也”는 少陽病의 提綱으로서 《注解傷寒論》<sup>25)</sup>에서 提出된 것은 아니며, 《傷寒論條辨·辨少陽病脈證并治上篇第一》<sup>26)</sup>에서 少陽病 提綱의 雛形을 隱匿하고 있으며, 《尙論·少陽經証治大意》<sup>27)</sup>에서 少陽病의 證과 脈의 要綱을 說明하였고, 《傷寒來蘇集·傷寒論注·少陽脉証》<sup>28)</sup> “仲景作論大法, 六經各立病機一條, 提揭一經綱領, 必擇本經至當之脉證而表章之”라 하여 “六經提綱說”을 提唱하고 “仲景特揭口苦 咽乾 目眩爲 提綱 奇而至當也”라 하여 少陽病의 提綱을 提出하였고, 《傷寒貫珠集》<sup>31)</sup>에서 “... 故柯氏日爲六經之綱領, ... 學者當參合他條, ...” 하여 六經의 各條는 各經의 脈과 證을 既述하고 있다는 “六經提綱說”을 認定하고 提綱에는 不足한 점이 있어 他條를 合參하여야 한다 하였고, 《傷寒論綱目·總論》<sup>32)</sup>에서는 六經의 提綱을 <六經主症> 篇을 構成하여 總論에 偏在하였고, 《醫宗金鑑·訂正中景全書·傷寒論注·辨小陽病脈證并治上篇》<sup>29)</sup>에서 少陽病의 此條를 “此揭中風, 傷寒邪傳少陽之總綱, 凡篇中稱少陽中風, 傷寒者, 卽具此証之謂也”라 하여 此條를 少陽病의 傷風 傷寒으로 傳變되어 나타나는 症狀의 總綱이며 少陽病의 概括의 位置로 此條를 意義를 格上시켰고, 陳<sup>30)</sup>은 “「少陽經脈經氣說」에서 標本中氣의 從化理論과 開闔樞의 氣化學說로 설명하고 此條를 小陽病의 總綱이다” 하였다.

그리고 《傷寒來蘇集·傷寒論翼·全論大法第一》<sup>28)</sup>에서 “六經病의 提綱은 六經의 發病이며 傷寒의 六經이 아니다. …… 口苦 咽乾 目眩의 三證은 少陽一經의 病機로서 風寒 雜病을 兼하여 말하는 것이다” 하였고, 《傷寒懸解·少陽提綱》<sup>35)</sup>에서는 “少陽病의 兼證이 많고 病情과 病狀이 變하여도 口苦·咽乾·目眩의 三證은 不變하여 少陽病의 提綱이 된다” 하였고, 《傷寒約編·太陽證提綱》<sup>33)</sup>에서 “風寒, 溫熱, 疫癘 및 雜病을 無論하고 少陽經에 病이 罹患되는 綱領으로 分經·定證의 基準이 된다” 하였다.

### 3. 少陽病<sup>22,23)</sup>

#### (1) 少陽經의 生理

少陽은 陽氣가 初生하는 段階로 陽氣를 表裏之間에 居하여 內外陽氣의 盛衰를 調節할 뿐 아니라 表裏之氣를 樞轉할 수 있는 轉樞作用이 있게 되어 《素問·陰陽類論》에서는 “遊部, 紀”라 하였다.

《素問·六味旨大論》에서 少陽의 上에는 火氣를 治하니 中에는 厥陰이 見하므로 少陽은 表가 되고 火가 本氣가 된다고 하였고, 《素問·至眞要大論》에서 言及한 標本 中氣從化의 觀點에서 보면 少陽은 標本同氣이므로 本을 따라 火로 氣化하게 되며, 足少陽膽은 足厥陰肝에, 手少陽三焦經은 手厥陰心包經에 絡하므로 手足少陽은 모두 相火를 司하여 相火가 少陽의 本氣가 되고 中見이 厥陰이 되므로 少陽經의 相火에는 風이 包含되어 있으며, 手足少陽經은 風과 相火의 均衡을 調節한다.

少陽之氣는 膽과 三焦氣化의 綜合인 發顯이며, 膽은 疏泄을 主管하므로 胃의 消化, 胃氣의 通降, 三焦의 樞轉은 膽氣의 疏泄作用에 依支하며, 膽은 內로는 三焦를 主宰하고 胃腸의 機能을 調節하는 役割을 擔當하고, 三焦는 主持諸氣와 通調水道의 機能으로 兩分할 수 있으며, 營氣 衛氣 宗氣의 活動은 三焦 氣化作用의 樞轉에 依存하며, 肺氣에 依한 水液의 肅降은 三焦 氣化作用을 通하여 膀胱에 入하게 된다.

따라서 少陽之氣가 臟腑之間에서의 主要活動은 氣液을 樞轉하고 水道를 通調하며 胃腸의 機能을 調節한다.

#### (2) 少陽經의 病理

少陽은 半表半裏에 居하여 開機로 表裏內外 및 陰陽氣血의 轉樞 등을 調節하는 것으로 少陽樞機의 太過는 氣가 升散하여 外越하려 하며, 不及하면 太陽之

氣가 外達치 못하며 甚한즉 結胸하게 되고 表裏陰陽間에 失調를 일으켜 嘔吐 胸脇苦滿 寒熱往來 등의 半表半裏의 症狀이 나타나고, 또 少陽은 表裏之間을 主하며 少陽之氣는 筋骨에 行하게 되므로 少陽과 筋은 密接한 關係를 가지게 되어 《靈樞·根結》에서는 “樞折則骨搖而不安于地”라고 하였다.

少陽經의 病은 少陽이 標本同氣이므로 本을 따라 氣化하여 火가 되며 少陽之腑는 膽이고 相火가 깃들여 있으며, 三焦는 相火의 發揮處로서 膽火失常 火上炎灼津 鬱結犯胃 樞機不利 등으로 要約할 수 있으며, 《傷寒論》의 少陽病 提綱의 口苦·咽乾·目眩 및 少陽中風의 兩耳無所聞·目赤·寒熱往來·胸脇苦滿·默默不欲飲食·心煩喜嘔·腹中痛 등의 症狀과 《靈樞·經脈》의 三焦手少陽之脈, 膽足少陽之脈의 是動則病과 是主 ‘氣’ ‘骨’ 所生病의 症狀이 나타날 수 있다.

### 4. 少陽病 提綱의 研究

(原文) 少陽① 之爲病, 口苦, 咽乾, 目眩②也. (263)

傷寒 脈弦細③ 頭痛發熱者, 屬少陽. (265)

(解釋) 少陽에 病이 들면, 口苦, 咽乾, 目眩이 따르고 弦細한 脈象과 頭痛發熱의 症狀가 나타난다. 少陽經에 寒邪의 侵襲으로 發病하면 弦細한 脈象과 頭痛發熱의 症狀가 나타난다.

(註解) ① 小陽: 成<sup>25)</sup>은 “少陽은 足少陽膽經이다” 하였고, 吳<sup>29)</sup>는 “少陽은 春에 應하며 氣의 半은 地上에, 半은 地下에 있어 半表半裏에 位置하고 外로는 太陽經이 있고 內로는 太陰經이 있다” 하였고, 黃<sup>34,35)</sup>은 “少陽의 作用은 二陽과 三陰間에 있으며 相火를 蟄藏한다” 하였고, 黃<sup>35)</sup>은 “《傷寒論》에서 足經만 言及하고 手經을 言及하지 않은 것은 手經과 足經은 同氣相求하며 足經은 身體에서 分齡된 部位가 크고 길며 氣가 旺盛하여 足經의 病이 深하고 手經의 病은 經하므로 足經으로 言及한 緣由이다” 하였고, 呂<sup>36)</sup>는 “少陽은 足少陽膽經과 三焦相火의 合化로 發病한다” 하였고, 楊<sup>22)</sup>은 “《傷寒論》의 六經氣化는 三陰三陽의 氣化의 反映으로 少陽은 手少陽三焦經과 足少陽膽經을 包含하며 開闢樞와 標本中氣理論이 縱橫으로 相互關係가 形成되어 있다” 하였다.

黃<sup>34,35)</sup>은 “少陽은 相火로 氣化를 行하며 經과 筋脈

을 포함하며 … 少陽의 作用은 二陽과 三陰間에 있어 陽明을 犯하면 嘔逆, 太陰을 犯하면 下利의 症狀이 나타난다” 하였고, 陸<sup>30)</sup>은 “少陽은 樞機의 作用으로 開闔을 調節하고 經은 側面을 循行하여 耳·目咽·口·小便 및 十一臟의 氣를 調節하여 厥陰은 標本, 少陰은 內外樞機, 太陽은 胸脇에서 出入, 太陰과 陽明은 胃脘部의 上中下에 合하여 少陽의 經氣는 諸經과 相通한다” 하였고, 姜<sup>8)</sup>은 “少陽은 疎泄을 主管하고 陽氣의 昇降出入의 樞紐가 되고 脾胃의 運化, 情志의 暢達을 調節하며 厥陰과 表裏가 되어 相火의 內部로의 敷布는 厥陰의 作用이며 外部로의 樞轉은 少陽의 作用이다” 하였다.

② 口苦 咽乾 目眩 : 成<sup>25)</sup>은 “《內經》曰 有病口苦者 名曰膽瘕. 《甲乙經》曰 膽者中精之府 五臟取決于膽, 咽爲之使. 少陽之脈 起于目銳眦” 하였고, 龐<sup>26)</sup>은 “足少陽膽經의 是動則病에는 口苦가 있고, 咽喉는 膽의 使이며 口苦 咽乾은 膽腑에 熱이 모여 있는 症狀, 目眩은 風火의 扇搖 燔灼에 依한 症狀이다” 하였고, 柯<sup>28)</sup>는 “相火가 空窺로 上走하여 나타나는 症狀이다” 하였고, 吳<sup>29)</sup>는 “口苦는 熱氣가 膽을 熏蒸하여 上溢한 것이며, 咽乾은 熱로 津液이 消耗되어 나타나는 症狀이며, 目眩은 熱이 目を 熏蒸하여 나타나는 症狀이다” 하였고, 郭<sup>37)</sup>은 “少陽의 病理表現에 있어 少陽과 厥陰은 臟腑로 相連되어 있고 熱이 肝膽으로 轉移되어 目眩의 症狀이 나타난다” 하였고, 張<sup>38)</sup>은 “風火가 少陽의 主氣이며 相火를 主管하고 標本이 熱이 있어 口苦 咽乾하며 風火가 相煽하여 目眩한다” 하였고, 姜<sup>8)</sup>은 “口苦는 邪가 火로 氣化되어 나타나며 咽乾은 熱이 津液을 消耗하여 나타나며, 眩暈은 風火의 上煽으로 나타나며, 口苦 咽乾은 陽明病에도 있고 目眩은 少陽病에만 있는 症狀이다” 하였다.

한편 張<sup>39)</sup>은 “少陽은 胃氣를 鼓舞시켜 邪를 上으로 升載하며 少陽의 樞機는 全적으로 胃氣의 充滿에 달려있다” 하였고, 曹<sup>40)</sup>는 “少陽 一經은 單獨의 病이 없고, 胃와 더불어 發病하며 胃가 逆上하면 口苦하고, 膽火가 上部의 胃管을 灼하면 咽乾하고, 胃熱과 膽火가 並合하여 腦를 熏蒸하면 目眩한다” 하였다.

③ 脉弦細 : 楊<sup>41)</sup>은 “中診法은 不輕不重하여 肌肉部位에서 按診하며 少陽과 陽明 二經의 脉을 察候한다” 하였고, 張<sup>38)</sup>은 “少陽의 脈은 弦脈이며 氣가 損傷되면 弦細한 脈이 나타난다” 하였고, 柯<sup>28)</sup>는 “弦은 春脈이며 細는 少陽이 初出하는 象이다” 하였고, 成

<sup>25)</sup>과 龐<sup>26)</sup>은 “三部에 弦脈이 나타나면 少陽의 病이며, 脈細는 邪가 漸漸 裏部로 轉變되는 것이다” 하였고, 姜<sup>8)</sup>은 “傷寒으로 因한 少陽의 細脈은 血虛 혹 血虛寒厥의 無力한 細脈이 아니고 外感으로 나타나는 細는 有力한 細脈이다” 하였다. 《傷寒論·傷寒例第三》의 제91조에는 “尺寸俱弦者, 少陽受病也”라고 하였는데 楊<sup>41)</sup>은 “尺寸俱弦은 少陽의 受病이며, 浮弦有力하면 太陽病의 兼病으로 表未解이며, 發汗하고 弦洪 弦長 弦數 弦滑有力하면 淸解하고, 弦遲 弦小 弦微하면 內虛有寒이면 宜溫하고, 弦脈은 汗 下利小便의 治法을 하지 않는다” 하였다.

《傷寒論》 少陽病 提綱의 제263조의 口苦·咽乾·目眩의 症狀에 關하여 柯<sup>15)</sup>는 “《素問·熱論》의 胸脇痛而耳聾은 단지 熱症의 半表半裏이며, 兩耳無所聞, 胸滿而煩은 中風一證의 半表半裏이므로 少陽病의 提綱에 넣지 않는다” 하였고, 黃<sup>35)</sup>은 “少陽中風의 兩耳無所聞 目赤 胸脇苦滿 寒熱往來 및 少陽傷寒 頭痛寒熱 등의 兼證과 病情이 遞變하고 病狀이 善移하여도 口苦·咽乾·目眩의 三證은 不變하여 少陽病의 提綱이 된다” 하였다.

그리고 少陽病 提綱은 風寒 雜病의 少陽病의 總綱이며, 六經病 提綱은 風寒, 溫熱, 疫癘 및 雜病을 包含하는 疾病의 分經·定證하는 綱領이 된다.

### III. 考 察

近年에 發掘된 醫學方面의 帛書, 漢簡 및 漢牘 중에서 先秦의 《足臂》, 《陰陽》 및 《脈法》에서 經脈의 路線, 經脈病候, 十二經脈脈診 및 灸刺絡의 治療法이 最初로 記載되어 있으며<sup>19)</sup>, 《靈樞·經脈》에서 十二經脈의 循環路線, 經脈病候 및 人迎·寸口脈診을 運用하였고, 《難經》에서 手太陰의 太淵穴 附近에서 五臟六腑를 診斷하는 六部定位脈診의 寸口脈診法에 依한 五輸穴을 運用하는 方法論을 提示하고 있다.

戰國 後期の 《五十二病方》에는 傷寒方面의 處方이 없고, 前漢의 《居延漢簡》에는 一個의 傷寒發汗治方이 있고, 東漢 初期의 《武威醫藥簡牘》의 《治百病方》에는 辨證論治의 雛形이 形成되어 外感傷寒의 處方에 對한 前承後啓의 役割을 하였고<sup>12)</sup>, 東漢末의 著名한 醫家 張仲景은 古代 여러 醫論과 다양

한 經方을 參考하고 臨床 經驗이 結合되어 《傷寒雜病論》을 著述하였다.

現存하는 《素問》의 <熱論>, <平熱論>, 《靈樞》의 <熱病篇>, <寒熱病篇>, <寒熱> 등의 外感熱病의 專門인 論述, 《難經·五十八難》의 ‘廣義傷寒說, 脈診 및 汗下法의 可·不可 등과 先秦 및 秦·漢代의 藥物知識이 總結된 《神農本草經》의 全身인 《胎臚藥論》 및 《漢書藝文誌》의 經方 등은 《傷寒論》의 著作에 撰集되고 選用된 醫學理論 및 先驗方劑의 根據를 提供하고 있다<sup>42,43)</sup>.

그리고 唐<sup>24)</sup>은 “《漢書藝文誌》와 《鍼灸甲乙經》에 根據하여 보면 仲景의 書는 《黃帝內經》에 本을 두고 있으며, 伊尹, 扁鵲, 倉公의 湯液法을 繼承하였고 … 醫門의 仲景은 儒門의 孔子와 같은 意味가 있다”고 하였다.

최근 傷寒論에 關한 研究에 있어 姜<sup>8)</sup>은 “《素問·熱論》의 六經分證은 《傷寒論》의 六經辨證의 淵源이며, 《傷寒論》의 六經辨證은 《素問·熱論》의 六經分證을 基本하여 深化하고 發展시켜 體系化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山田<sup>16)</sup>은 “宋 以後의 《傷寒論》의 文獻 및 醫學의 研究의 主題는 《傷寒論》 屬에 內藏된 醫學的 方法 즉 六經辨證으로 불리는 診斷 및 治療의 方法을 確立하는 過程이었다”고 하였고, “戰國後期의 著作으로 보이는 馬王堆 出土 醫書의 《十一脈灸經》 과 《五十二病方》을 보면 藥物療法과 鍼灸療법은 各自 獨立적으로 發展하였고 …… 解剖學의 發達, 循環器와 內臟 및 經絡과 臟腑의 連繫는 藥物療法과 鍼灸療法の 兼用할 수 있는 理論의 基礎인 道路가 創立되었고 … 《傷寒論》은 經脈學說에서 發展된 脈診法을 藥物療法에 導入하여 體系化하였다” 하여 《傷寒論》이 經脈學說과의 理論的 連貫性을 論述하였고, 金<sup>23)</sup>은 “《傷寒論》의 六經病은 三陽症과 三陰症을 概括한 것으로 基本的으로 十二經脈의 手足同名經의 病候를 精簡, 補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傷寒論》의 六經構成과 《內經》의 構成體系에는 차이. 太陽病中에 手太陰經과 肺臟病證이 包含되어 있고, 少陰病에서는 足太陰經과 脾臟病證 뿐이고, 小腸은 陽明에 隸屬시키는 차이점이 있다” 하여 《傷寒論》의 六經病과 《內經》의 經絡體系와의 連貫性과 差異點을 說明하였다.

論者는 六經病의 脈·證의 關係에 對한 考察은 經脈病候와 寸口脈을 相互補充하는 鍼灸療法の 研究에 必要하다고 생각되며, 《傷寒雜病論·序文》에서 引

用한 文獻을 根據하여 經脈의 理論 및 病候를 六經病과의 相關性을 찾고, 六經 가운데 少陽病 提綱이 形成된 淵源과 意義 및 少陽病 提綱을 利用한 鍼灸學적 分證, 分經의 方法을 연구를 進行하였다.

宋, 明 및 清代 大部分의 《傷寒論》의 注家들은 제263조의 “少陽之爲病, 口苦, 咽乾, 目眩也”의 少陽病 提綱을 不上不下 不前不後의 半表半裏의 症狀으로 手·足少陽經의 相火 氣化 및 樞機의 生理·病理의 面에서 註釋하고 있으며, 柯<sup>28)</sup>는 “仲景 六經의 總綱은 《素問·熱論》과 不同하고 少陽은 半表半裏에 重點을 두고 經絡의 病候가 아니며 … 口苦·咽乾·目眩의 三證은 少陽經의 病機로서 風寒 雜病을 兼하여 말하는 것이다” 하였고, 徐<sup>33)</sup>는 “此條를 風寒, 溫熱, 疫癘 및 雜病을 無論하고 少陽病에 病이 罹患되는 綱領으로 分經·定證의 綱領이 된다” 하였다.

한편 蔡<sup>44)</sup>는 “陽明病에 口苦·咽乾의 症狀이 있어 陽明病의 所屬證이고 少陽病의 正證이 아니며, 眩暈은 太陽病의 苓桂朮甘湯의 條와 少陰病의 眞武湯의 條에 있어 少陽病에는 言及이 없어 提綱이 될 수 없다” 하였고, 山田<sup>44)</sup>은 “少陽病의 總綱은 亡失된 것으로 「口苦 咽乾 目眩也」의 七字는 王叔和가 補充한 것으로 少陽病의 提綱이 될 수 없다” 하였고, 姜<sup>8)</sup>은 “口苦는 邪가 火로 氣化되어 나타나며 咽乾은 熱이 津液을 消耗하여 나타나며, 眩暈은 風火의 上煽으로 나타나며, 口苦 咽乾은 陽明病에도 있고 目眩은 少陽病에만 있는 症狀이다” 하였다.

單<sup>45)</sup>은 “《傷寒論》은 臟腑 經絡 및 氣化學說이 融合되어 辨證論治의 體系가 貫通되어 있다” 하였고, 楊<sup>22)</sup>은 “《傷寒論》의 六經氣化의 實在는 手·足三陰三陽經의 經絡氣化學說의 反映으로 … 標本中氣의 從化理論과 開闔樞의 氣化學說은 傷寒六經氣化의 整體理論이며 縱橫으로 傷寒六經間의 相互關係를 闡述하고 있다” 하였고, 吳<sup>46)</sup>는 “用藥은 《傷寒論》의 六經分証으로 治病하고, 用鍼은 《奇經八脈》의 八脈交會八法으로 治病한다” 하였고, 또 “鍼灸와 藥物의 治病의 原理는 一致하며, … 用藥은 三因(外因 內因 不內外因)을 區分하여 治療하고, 用鍼은 三因의 區別없이 何經의 寒熱虛實을 살펴 施術을 한다” 하였다.

한편 少陽病 提綱의 “口苦 咽乾 目眩”의 證候에 關하여 黃<sup>35)</sup>은 “少陽中風의 兩耳無所聞 目赤 胸脇苦滿 寒熱往來 및 少陽傷寒 頭痛寒熱 등의 兼證과 病情이 遞變하고 病狀이 善移하여도 口苦·咽乾·目眩의 三證은 不變하여 少陽病의 提綱이 된다” 하였고,

柯<sup>15)</sup>는 “少陽은 半表半裏에 位置하고 三焦에 相火의 遊行을 管理하며, 口·咽·目은 臟腑精氣의 總窺로서 天地의 氣와 相通하며, 表 혹 裏도 아니며 表入裏 裏出表의 場所로 정확히 半表半裏의 位置에 該當하고, 開合을 自由自在로 하여 樞의 機能과 恰似하며, 口苦 咽乾 目眩의 症狀은 相火가 空竅에 上走하는 症狀이며, 風寒 雜病의 少陽病의 總綱이 된다” 하였다.

그리고 《傷寒論》의 鍼灸學에서 運用 方法은 三陰三陽의 經絡辨證<sup>47)</sup>과 《傷寒論》의 研究方法 中에서 辨證論治派<sup>12)</sup>의 “分經論證” 條門에 따른 鍼灸處方을 構成하는 方法과 “以方類證”의 方劑의 運用法에 따라 鍼灸處方을 構成하는 方向으로 追究되고 있다.

高<sup>48)</sup>는 《傷寒論》의 “以方類證”으로 六經病의 各處方 方解와 旁通하는 穴位를 選擇하여 鍼灸療法을 提示하였고, 單<sup>45)</sup>은 《傷寒論》의 “分經論證”으로 六經病의 各 條文에 鍼灸處方을 構成하였다.

19C 末葉의 李<sup>49)</sup>는 “《傷寒論》을 爲主로 金·元 四大家 및 明代의 醫家들의 醫論을 窮究하여 四象人의 臟腑性理에 따른 生理 病理 診斷 및 治方의 理致를 論述한 著述인 《東醫壽世保元》에서 《傷寒論》의 太陽病·陽明病·少陽病·太陰病·少陰病·厥陰病은 病證의 名目이며, 太陽人·少陽人·太陰人·少陰人은 人物의 名目으로 兩者의 關係를 混同하지 않도록 깊이 洞察하여야 한다하였고, 《傷寒論》의 六經病 中에서 三陰病證은 少陰人病證, 少陽病病證은 少陽人病證, 太陽病病證과 陽明病病證은 少陽人·少陰人·太陰人의 病證에 모두 있다하여 歷代 《傷寒論》 研究의 主題인 症狀分類 中心의 六經辨證에서 사람(四象人)中心의 八種類의 臟腑病理論을 中心으로 하는 症狀分類로 轉換하는 契機가 되는 醫論을 提唱하였다.

向後 鍼灸療法의 研究方向도 《傷寒論》의 六經分證에 따른 症狀中心의 鍼灸治療 혹은 方劑에 따른 鍼灸處方을 構成하는 方法에서 사람(四象人)의 臟腑性理에 差異에 따른 鍼灸療法의 研究로 方向轉換이 必要할 것으로 생각된다.

#### IV. 結 論

《傷寒論》少陽經 提綱이 形成된 淵源 및 少陽經 提綱의 鍼灸學的 分證 分經의 運用 方法을 研究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傷寒論》의 六經辨證은 《素問·熱論》의 六經分證을 基本으로 하여 繼承하고 發展되었다.
2. 少陽病 提綱은 風寒, 溫熱, 疫癘 및 雜病으로 因해 少陽經으로 罹患되는 症狀의 分經·定證의 綱領이 된다.
3. 宋, 明 및 清代 《傷寒論》 注釋家들은 少陽病의 提綱을 人體의 半表半裏에 位置하고 上下, 內外의 三焦 相火 遊行을 調節하는 生理·病理의 인 面에서 解釋하였다.
4. 《傷寒論》少陽病은 少陽經의 樞達, 和解의 治法을 中心으로 手·足少陽經 및 厥陰經의 要穴을 運用하는 “觀其脉證 知犯何逆 隨證取穴”의 辨證論治의 觀點에서 用鍼한다.

#### V. 參考文獻

1. 이정훈, 윤중화. 足臂十一脈灸經에 關한 研究. 대한침구학회지. 1998 ; 15 (1) : 181-200.
2. 이정훈, 윤중화. 馬王堆 出土 醫書 中 陰陽十一脈灸經에 關한 研究. 대한침구학회지. 1996 ; 16 (2) : 139-179.
3. 서용원, 윤중화, 김갑성. 馬王堆 出土 醫書中 《脉法》에 關한 研究. 대한침구학회지. 2002 ; (19) 1 : 210-224.
4. 황민섭, 손성철, 배대영, 김갑성, 윤중화. 古代 經脈病症體系에 있어 “是動則病” 과 “是主某所生病” 에 關한 研究. 대한침구학회지. 2002 ; (19) 2 : 14-27.
5. 신광순, 장준혁, 윤중화. 《靈樞·經脈》의 寸口 人迎脈診에 關한 研究. 2002 ; 9 (1) : 210-214.
6. 凌耀星. 難經校注.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1 : 146-150.
7. 葉霖. 難經正義. 上海 :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 94-102.
8. 姜建國, 李樹沛. 傷寒析疑. 北京 : 科學技術出版社. 1999 : 7. 21-23. 290-295
9. 福州市人民醫院. 脉經校釋.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84 : 344-485.
10. 錢超塵 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 中國 中醫學出版社. 1994 : 1-332.
11. 劉渡舟. 傷寒論臨證指要. 北京 : 學苑出版社.

- 1999 : 2-4.
12. 葉發正. 傷寒學術史. 武昌 : 華中師範大學出版社. 1995 : 9-14, 90-130.
  13. 朱肱 著. 임진석 옮김. 活人書. 서울 : 아티전. 1998 : 54.
  14. 陳明, 劉燕貨, 張保偉 撰次整理. 劉渡舟傷寒臨證指要. 北京 : 學苑出版社. 1998 : 17-22. 212-217.
  15. 柯琴. 傷寒來蘇集. 上海 :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 7. 162-166. 178-198.
  16. 山田慶兒 著. 전상운, 이성규 옮김. 중국의학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서울 : 사이언스북스. 2002 : 178.
  17. 葉橘泉 收藏. 古本康平傷寒論. 長沙 :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88 : 1-3.
  18. 李心機. 《傷寒論》疑難解讀.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9 : 40-41. 51-52. 69-76.
  19.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 12. 321-652.
  20. 王玉川. 運氣探秘. 北京 : 華夏出版社. 1995 : 6-9. 48-51.
  21. 南京中醫學院傷寒教研組 編著. 傷寒論 譯釋. 上海 :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0 : 2.
  22. 楊力. 中醫運氣學. 北京 :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5 : 95-99. 203-206.
  23. 金丁雨. 經絡學說을 통한 經脈病候에 관한 研究. 서울 : 東國大學校大學院 韓醫學科博士學位論文. 1994 : 112-117.
  24. 唐容川. 唐容川醫學全書·傷寒論淺注補正.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2000 : 183, 204, 224.
  25. 成无己. 注解傷寒論.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66 : 54. 150.
  26. 龐有執. 欽定四庫全書 子部五醫家類·傷寒論條辨. 서울 : 大星出版社. 1995 : 775-7.
  27. 喻嘉言. 喻嘉言醫學全書·尚論.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 19.
  28. 柯琴. 傷寒來蘇集·傷寒論注. 上海 :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 7. 103.
  29. 吳謙 等編. 醫宗金鑑.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6 : 179. 203.
  30. 陳恭薄. 近代中醫珍本集·傷寒論章句.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94 : 309-311.
  31. 尤怡. 傷寒貫珠集. 北京 : 中醫古籍出版社. 1998 : 2-3.
  32. 沈金鰲. 沈金鰲醫學全書·傷寒論綱目.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 614-619.
  33. 徐大椿. 徐大椿醫學全集(上冊)·傷寒 約編.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88 : 807.
  34. 黃元御. 黃元御醫書全集·傷寒說意.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0 : 539-541.
  35. 黃元御 : 黃元御醫書全集·傷寒懸解.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0 : 170-171.
  36. 呂震. 近代中醫珍本集·傷寒分冊·傷寒尋源.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94 : 682.
  37. 郭霽春, 張海玲. 傷寒論校註語釋. 天津 :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 : 176.
  38. 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傷寒論集注.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 687.
  39. 張璐. 張璐醫學全書·傷寒續論.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 587.
  40. 曹穎甫. 近代中醫珍本集·傷寒分冊·傷寒發微.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94 : 158.
  41. 楊璿. 傷寒瘟疫條辨.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86 : 7-8.
  42. 班固 著. 李世烈 解譯. 漢書藝文誌. 서울 : 자유문고, 1995 : 306-321.
  43. 從春雨. 敦煌中醫藥全書. 北京 : 中醫古籍出版社. 1994 : 114. 116-125.
  44. 蔡仁植. 傷寒論譯詮. 서울 : 高文社. 1985 : 192-196.
  45. 單玉堂. 傷寒論鍼灸配穴選注.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88 : 22-26. 36.
  46. 吳崑 著. 施土生 校釋. 鍼方六集校釋.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1991 : 271-316.
  47. 劉孔藤. 經絡辨證概論. 廈門 : 廈門大學出版社. 1988 : 102-118.
  48. 高峰, 高立山. 鍼灸心傳. 北京 : 中央廣播電視大學出版社. 1993 : 114-170.
  49. 韓東錫. 東醫壽世保元註釋. 서울 : 誠理會出版社. 1967 : 117-122.